이세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출처: 이상민, 방재성, 이세진, 유예슬, 이세민. (2024).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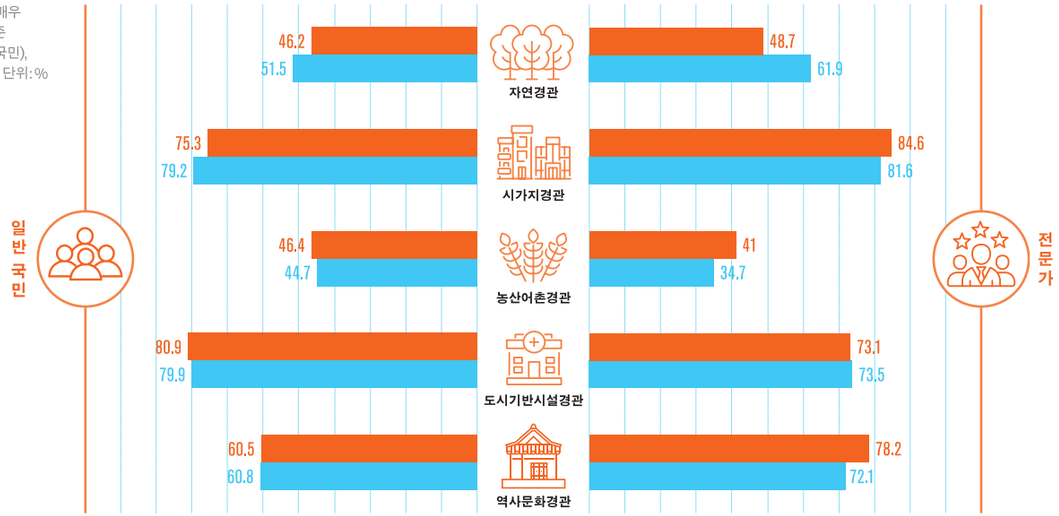
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건축공간연구원은 경관정책이 추진된 이후 국토경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수요를 파악하고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년 6월 7일부터 4일간 일반 국민 1,000명, 40일간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다.

■ 2019년
■ 2024년

Q 10년 전과 비교할 때,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관이 어떻게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TOP2(좋아짐+매우 좋아짐) 응답 기준
N=1,000(일반 국민),
N=147(전문가), 단위: %



A 10년 전보다 '도시기반시설, 시가지, 역사문화경관은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자연경관과 농산어촌경관은 악화되었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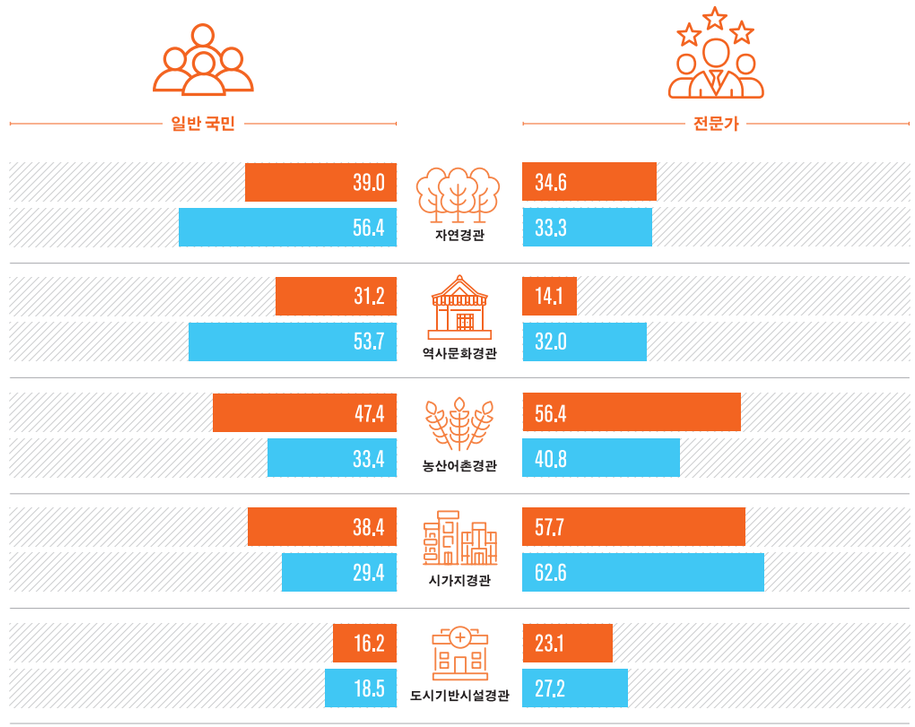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10년 전과 비교하여 도시기반시설 경관(79.9%, 73.5%)과 시가지 경관(79.2%, 81.6%), 역사문화경관(60.8%, 72.1%)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연경관과 농산어촌경관은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관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는 경관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자연경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문가는 크게 증가(+13.2%)하였다. 농산어촌경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문가는 크게 하락(-6.3%)한 것을 볼 수 있다.

■ 2019년
■ 2024년

Q 국민들은 어떤 경관을 가장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생각할까?

종합순위(1+2순위) 응답 기준
N=1,000(일반 국민),
N=147(전문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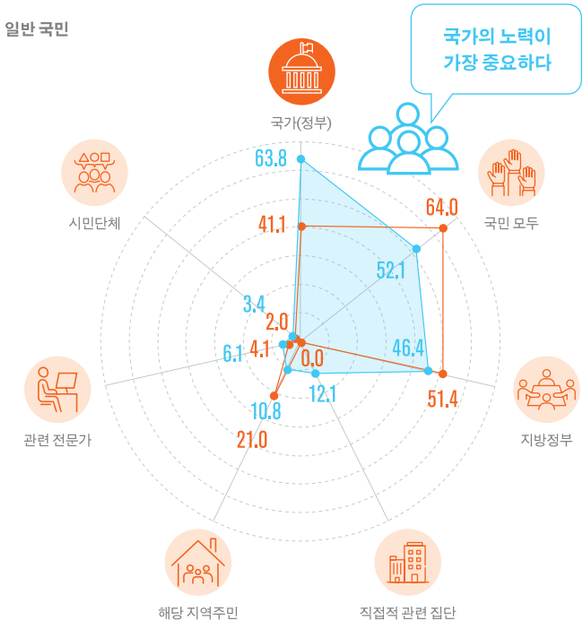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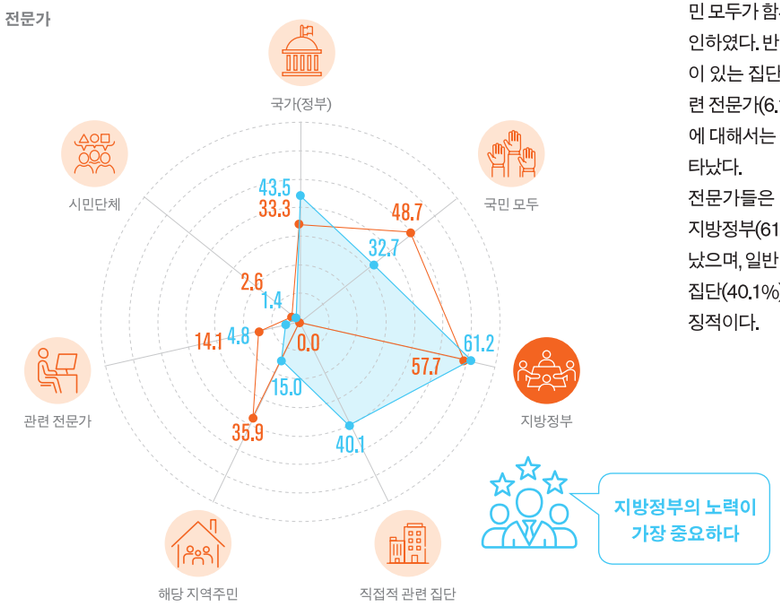
A 일반 국민들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전문가는 시가지경관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인식

2019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관 가운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경관 유형으로 2019년에는 농산어촌경관, 자연경관 및 시가지경관을 꼽았지만, 2024년에는 자연경관(+17.4%)과 역사문화경관(+22.5%)이라는 응답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이 두 유형을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반면에 농산어촌경관(-14.0%)과 시가지경관(-9.0%)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감소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응답과는 대조적으로 전문가들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경관 유형으로 2019년에는 시가지경관, 농산어촌경관을 꼽았으며, 2024년에도 여전히 시가지경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크게 높아졌으며, 2019년 대비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10년 전과 비교하여 농산어촌경관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종합순위(1+2순위) 응답 기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 항목은 2024년도 조사에만 포함
N=1,000(일반 국민), N=147(전문가), 단위: %(복수 응답)

■ 2019년 ■ 2024년

Q 국민들은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위해 누구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A 일반 국민은 국가의 노력을, 전문가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며, 일반 국민 스스로 국민 모두의 노력을 중요하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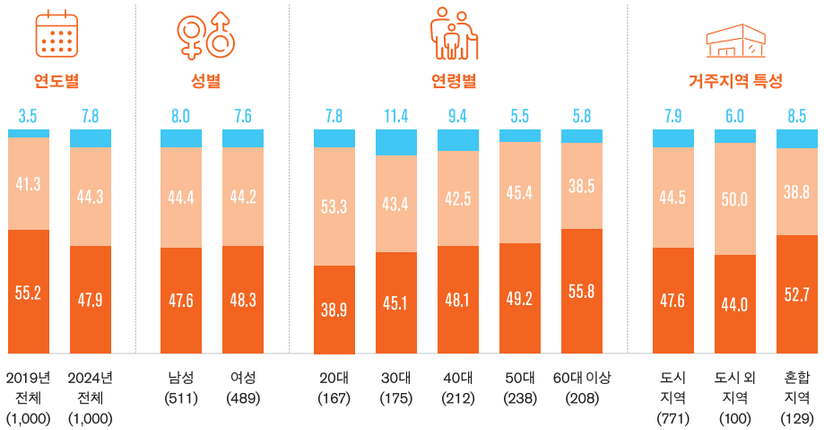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경관을 형성·관리하기 위한 주체로 일반 국민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크게 증가(22.7%)하였으며, 전문가는 여전히 지방정부와 국가의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위로 일반 국민들은 '국민 모두(52.1%)', '지방정부(46.4%)' 순으로 응답하여 경관을 형성·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12.1%), 해당 지역주민(10.8%), 관련 전문가(6.1%), 시민단체(3.4%) 등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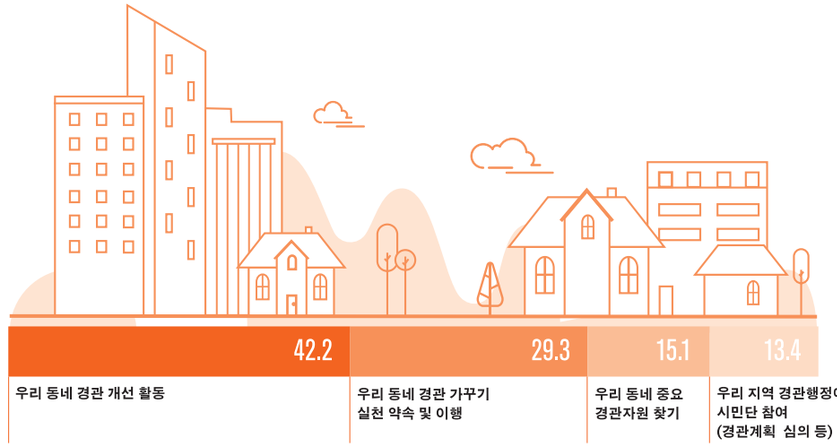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경관을 형성·관리하기 위한 주체로 지방정부(61.2%), 국가(43.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국민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집단(40.1%)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Q 국민들은 경관을 형성·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할까?

■ 참여 의향 없음
■ 참여 의향 반반
■ 참여 의향 있음



N=922(경관 형성·관리 활동에 참여 의향 있음, 반반 응답자), 단위 : %



A 일반 국민들의 경관 형성·관리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감소하고, 주체로서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비교적 선호

일반 국민 2명 중 1명(47.9%)만이 경관 형성·관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수치(-7.3%)다. 특히 여성(48.3%), 60대 이상(55.8%), 혼합지역(52.7%) 거주자의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우리 동네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42.2%)과 '우리 동네 경관을 가꾸기 위한 실천 약속 및 이행'(29.3%)이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어서 '우리 동네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 찾기'(15.1%), '우리 지역 경관 관련 계획 수립, 심의 등의 행정절차에 시민단으로 참여'(13.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이 제도적 참여보다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